- 제 2 강 -

토착화 신학

"온고이지신(溫故而知新)과 현지화의 줄타기 혹은 정체성 찾기?"

박 일 준 박사
감신대 종교철학/인문학밴드 '대구와카레' 회원

1. 신앙과 신학의 비등가성

- '신학의 현장성'이라는 헛된 망령
- 모든 믿음은 보이지 않는 'system'의 작동을 전제로 한다.
- 신학은 신앙의 이 system을 세우는 것이 더 이상 아니다.
- 부단히 변해가는 세계 속에서 신앙의 적합성을 위한 가설적 대안을 모색하며,
- 이론은 이미 지나간 것(the no longer)가 사라지지 않고,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(as the given)를 살펴보고,
- 이론적 대안을 통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(the not-yet)을 준비한다.

2. 토착화 신학의 이중적 과제 - 그 발칙한 저항 전략

- '토착화'(indigenization)은 본래 '현지화' 전략을 가리킨다. (서구 기독교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현지들에 정착하도록 하는 선교정책 / 맥도날드의 가격 현지화 정책처럼).
- 한국에서 '토착화'는 서구 선교사의 주도에 의한 현지화 전략이 아니라, 서구 복음이 한국적 문화 토양 속에서 어떻게 습합, 접목, 이식 혹은 변혁될 수 있을 것인지를 지식인들이 먼저 자생적으로 고민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.
- 이 과정에서 제국적 기독교의 현지화 전략이 토착 지식인들의 저항적 자각으로 변형된다.
- 혼합주의(syncretism) 논쟁이 한국 기독교에서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.
- 초기 토착화 신학 모델인 씨앗/종자의 이중성 모델이 주체/대상 관계를 연상시키긴 하지만,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것은 바로 "두 주체"(two

subjects) 문제, 즉 "둘"(the Two)의 문제이다.

3. 토착화 신학에 대한 오해

- 토착화 신학은 한국(적) 신학을 지향하므로 서구 제국의 모든 신학적 시도들 일체를 거절하거나 배제한다는 착각.
- '토착화'의 저항적 몸짓은 인도의 탈식민주의(post-colonialism)나 서브알턴(sub-altern) 개념처럼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에 근거하여, 서구 문화와의 긍정적인 만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신학.
- 사이드의 '오리엔탈리즘'(orientalism), 서구의 다문화주의, 세속주의, 해방신학, 탈식민주의, 서브알턴(subaltern) 등이 토착화 신학의 모델 형성에 기여.

4. 토착화 신학의 지류들

- 탁사 최병헌 – 정경옥 – 유동식 – 윤성범 – 변선환 – 이정배
- 유영모 – 함석헌 – 김흥호
- 유동식: 한국종교연구의 습합이론을 바탕으로 무교를 한국적 종교성의 원형으로 보고, 기독교를 그 완성으로 가정
- 시무언 이용도 (성령운동)
- 김교신 – 함석헌(무교회주의)
- 함석헌 – 안병무 – 서남동 – 현영학 – 서광선
- 재미 신학자들(이정용, 앤드류 박 등)

5. 되새겨보아야 할 연구들

- 유동식: 한국종교연구와 신학의 만남
  한국종교의 원형으로서 '무속' 연구
  단군신화에 대한 재조명
  고대 동북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

- 윤성범: 유교와 신학의 만남
  * 전통가치의 핵심으로 효(filial piety)를 정의하고, 이를 예수의 성부/성자 관계와 평행하여 이해하려는 노력

* 한반도 마지막 왕조 조선과 5백년을 함께 한 전통에 대한 현대 한국인들의 몰이해.
  - 현실 세계를 인(仁)의 정치로 변혁하겠다는 발상.
* 인(仁)은 사람(人)과 둘(二)로 구성된 말: 하늘과 땅 사이를 매개하는 사람이 어진(혹은 진정한) 인성을 발휘할 때, 만물이 제자리를 잡는다는 생각.
* 현실정치와 동 떨어지지 않았던 유교 전통에 대한 '민본주의적 재해석': 상소 전통

- 변선환: 불교와 신학의 만남 / 종교적 다원성(religious plurality)과 다원적 종교성(multiple religious identity[belonging])에 대한 성찰
  * 불교와 신학의 만남
  * 무교 다음으로 한반도에서 성행하고 있는 종교, 그 이유는? - 인간 삶의 허무와 공허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제공
  * 한국문화의 다원성: 다양한 종교문화 간의 갈등이나 대결 없이 5,000년을 지낼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은 언제나 타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환대의 논리와 평행적으로 전개하는 서구의 심리적 변증법을 능가하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.
  * religious plurality와 multiple religious identity의 문제

- 다석학파와 한국적 신학(이정배)
  * 한글로 신학하기의 진정한 가치: 한글의 말놀이를 철학적 차원으로 전개한 독창적 사상가 유영모.
  * 고난의 해석학을 매개로 전개한 함석헌의 씨올 사상 - 민족의 가혹한 고난의 경험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여, 세계 변혁의 신학으로 재구성하려는 몸짓.
  * 토착화 신학을 한국(적) 신학으로 확장해 나아가려는 몸짓(이정배)는 진행 중.

6. 우리 시대의 토착화 신학을 위한 세계지형

-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범지구적인 자본과 저항
- 민중/다중의 해석 문제
- 다문화주의의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'관용'의 철학적 정치적 문제
- 여전한 오리엔탈리즘
- 갈라진 민족의 문제: 갈라진 국경, 갈라진 정치, 갈라진 性의 문제들
-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한국교회의 문제
- 신학과 신학교의 위기들